

여야 갈등 격화... 지방선거 동시투표까지 '머나먼 길'

유신·간선제 개헌 이어 세번째 대통령 발의 개헌안
한국당 협조 없인 국회 합의안도 정부안 표결도 못해
5월 4일까지 국회 합의 개헌안 나오면 철회 될 수도

향후 일정과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권력 구조 등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져 국회 문턱을 쉽게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미=문 대통령의 이날 개헌안 발의는 역대 세 번째다. 최초로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72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폐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헌법개정안을 진행, 10월에 공포했다.

◇향후 개헌 일정=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헌법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겠지만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의결 시한에 맞춰 개헌안을 처리한다면 그 다음 절차는 국민투표일 공고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의 바람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5월 26일에는 공고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 토요일이어서 사실상 5월 25일에는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공고 기간을 거친 정부 개헌안은 추후 수정될 수 없다. 대신 정부 개헌안이 철회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5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대신 국회가 마련한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 지려면 여야는 적어도 5월 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 개헌안이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4일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국회가 공을 넘겨받았지만 협상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입장이 너무 크게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방위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설득하겠지만 야당, 특히 개헌저지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6월 지방선거 동시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회의 선택지는 3개로 좁혀진다. 여야가 최대한 빨리 국회 합의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거나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개헌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모두 결렬될 경우 정부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국회 개헌 합의안이 나온다면 정부안이 철회되고 국회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시기는 물론 권력구조 핵심 쟁점에서 여야 입장이 커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토대로 한 국회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승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투표 시기를 6월 선거 이후로 조절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기 위해 5월 4일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투표 시기를 조율에 실패하면 정부 개헌안 표결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과 부결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와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부 개헌안 원안대로...국무회의의 40분만에 의결

정부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모친상으로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이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을 낳았다"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이어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

의 주제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사법 민주화를 강화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길 요청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국민 동참을 부탁했다.

이 총리가 모두 발언을 끝내고 오전 10시 8분께 개헌안을 상정하자 김의숙 법제처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여성부 장관·행안부 장관·국토부 장관·감사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개헌안에 대해 발언했다.

개헌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40분이 조금 지난 오전 10시 48분께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행정보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총리, 모친상에도 개헌안 국무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이 총리가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리의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별세했다.

이 총리는 7남매 중 장남이다. 이 총리를 비롯한 자녀는 2006년 모친의 팔순을 맞아 어머니에 관한 추억을 되새길 수필을 엮어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도 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와 이후 사무절차를 마친 후 빈소로 돌아갔으며 가족과 함께 조용히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빈소는



모친상을 당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빈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의 조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조화와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5·18 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문화

평화당 자체 개헌안 마련

민주평화당은 26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핵심과제"라면서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각 임명제정권을 제대로 행사해 책임

총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당은 외교·통일·국방장관은 총리의 제정권을 삭제해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 정당별 득표율과 전체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이 비례하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주권운동의 효시로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위혁명 등을 수록했다.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 요구를 반영,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명시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평등 차원에서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체'를 도입했다.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건강권·생명권·안전권을 신설하고 평등권을 강화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강 등 신설, 고위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근본적 차단,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평화당은 설명했다.

이 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의원 특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HanaPack

5월 징검다리 연휴

4월 28일(토), 5월 3일(목) 단 2회 운항!
무안↔하노이·하롱베이여행

하나팩 AVPF10_A
얼리버드
하노이/하롱베이/엔뜨 5일
총 상품가격 **7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비엠텝 항공
무안-하롱베이(2)-엔뜨-하노이(1)-무안
전일정 4성급호텔 숙박, 차맥 아식 제공 (성인인 1인)

하나팩 AVPF11_B
동반이동할인
하노이/하롱베이/닌빈 5일
총 상품가격 **9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비엠텝 항공
무안-하노이(2)-하롱베이(1)-무안
5성급호텔 1박숙박, 수상인형극, 정안관광 럭셔리크루즈+뷔페포함

하나팩 AVPF12_D
노쇼핑, 10명이상시 인솔자 동행
하노이/하롱베이/엔뜨 5일
총 상품가격 **1,3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 선택경비 있음

✈ 비엠텝 항공
무안-하노이(1)-엔뜨-하롱베이(2)-무안
전일정 5성급호텔 숙박, 센레스토랑, 스트릿가, 전선마사지 1시간, 럭셔리런치크루즈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예약시 광주일보 고객임을 말씀해주셔야 전용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광고재제된 상품 한정)

■여행상품 가격표해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경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 참조) ■선착순) 한정에서 고객과 선착순에 따라 자유여행 및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 참조) ■박지경기자) 여행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02-228-1199로 문의주세요. ■관광사망자 등 특별보조금) 02-228-1199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곳/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산/불만접수) 16, 1577-1233(ARS 안내번호 02)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세과금(과외)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여행 유의) 여행 자체 ●참수 권고 ●여행 금지)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에 담당합니다.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